

트럼프 주니어, 총수 릴레이 면담… ‘對美 네트워크’ 강화

정용진 회장 초청… 1박2일 방한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 면담
한미 경제동맹 중요성 등 대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9~30일 일정으로 방한하면서 국내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30일 하루 동안 국내 재계 총수와 ‘릴레이 면담’을 예고한 상태여서 재계는 이를 통해 대미 네트워크 활성화를 찾기위함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은 국내 재계 인사 중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하루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 1대1 ‘티 타임’ 형식으로 총수마다 1시간 안팎 만날 예정이다. 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만나 사진을 찍은 모습.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SNS 갈무리

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전과 스마트폰, 반도체 업계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향후 전자제품으로 일괄적인 품목별 관세를 붙일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

장, 구광모 LG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과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재계는 트럼프 주니어와 총수들의 회동에서 관세 완화와 같은 직선적 논의보다는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 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 보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트럼프 정부에 전달돼 관세나 보조금의 실마리를 푸는 시작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포항 음극재 공장.

/포스코퓨처엠

美, 비중국산 선호 기조에 ‘음극재 사업’ 성장 기대감

포스코퓨처엠

1분기 음극재 매출 전년비 30% 증가
호주 업체와 연간 6만톤 흑연 공급계약

포스코퓨처엠이 북미 시장을 위주로 양극재 수출을 확대해 왔지만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조짐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커지는 음극재 시장에서는 구조적 성장 기회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의 2025년~2026년 양극재 판매 전망치가 각각 7%, 10%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판매량은 4664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32.6% 증가했지만 GM 전기차 판매 둔화 가능성이 내년 이후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매물량 상당부분이 미국 완성차 고객사의 판매 수요와 연관돼 있는 만큼 양극재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출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반적 업황 리스크가 있지만 음극재 사업 부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부각되고 있다. 음극재는 1분기 매출 39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30.2%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에 따른 비중국산 선호 기조가 부각되며 점진적인 수요 개선이 예

상된다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 지역 의존도가 높은 흑연계 음극재에 대한 탈중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음극재의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음극재 시장 내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포스코퓨처엠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또한 최근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충전 속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음극재 관련 기술력 개발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다수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포스코퓨처엠도 지난해 호주 광산업체 ‘시라 리소시스’와 아프리카 모잠비크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을 올해부터 연간 최대 6만톤까지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흑연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만큼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제조 원가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애경케미칼, ‘나트륨 배터리’ 승부수

‘하드카본’ 실적반등 핵심카드 주목
내년 공장 증설, 2027년 상용화 예상

애경케미칼이 배터리 소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사업구조 전환에 나섰다. 나트륨이온배터리(SIB)용 하드카본 개발을 본격화하며 전통 석유화학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은 ‘하드카본’을 실적 반등의 핵심 카드로 주목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예상하며 이에 맞춰 2026년까지 공장 증설과 비용 절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리튬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대체 수요가 급증하며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가 반영됐다.

배터리는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과정에서 충·방전되는데 리튬이온은 입자가 작다. 나트륨 이온은 입자가 크기에 격자 간격이 넓은 터널인 하드카본이 필수다.

더욱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의 새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공개해 관련 시장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무게에 비해 수명이 짧고 충전 시간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CATL이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KB금융그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차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ペット보험

KB손해보험